

농기평, 과제관리·연구비 설명회 개최

연구비 집행부터 연구윤리까지 한자리 안내

1차 2026. 5. 29. (금) 13:00~
충남대학교 백마홀

2차 2026. 6. 8. (월) 13:00~
aT센터 그랜드홀

시간	내용
13:00 ~ 13:05	개회사
13:05 ~ 13:35	농식품 R&D 과제관리
13:35 ~ 14:35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14:35 ~ 14:50	연구윤리·재제사예 안내
14:50 ~ 15:00	정리
15:00 ~ 16:00	공동 Q&A
13:00 ~ 17:00	1:1 컨설팅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공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농식품 R&D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 대 전 충남대학교 백마홀과 6월 8일 서울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6년도 농식품 R&D 과제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과제 관리와 연구비 집행 등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방법,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기준, 부

정 집행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및 제재 사례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자 맞춤형 1:1 컨설팅'이 상시 운영돼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교육 이수 여부는 과제별 단계 평가 기간 내 정성평가에 반영되므로, 연구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노수현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제관리와 연구비 사용 기준, 연구윤리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다"며 "현장 1:1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어촌공사, 금전저수지 재난대비 합동훈련

14개 기관 참여...극한 호우 대응체계 점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4일 전남 화순군 금전저수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화순군,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관계기관과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와 관계기관 간 협업 절차를 점검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극한 호우로 인한 저수지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낙뢰로 전신주가 파손돼 방류시설 조작이 어려워지고, 상류에서 유입된 대규모 부유물이 물길을 막아 방류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저수지 수위가 상승하고 사면이 유실되는 복합 재난 상황으로 전개됐다.

공사는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결정한 뒤 긴급 주민 대피, 수위 조절, 응급 복구를 순차적으로 실시

했다. 우선 하류 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했고, 대형 양수기를 투입해 저수지 수위를 낮췄다. 이후 유실된 사면에는 방수포를 설치하고 마대를 쌓아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응급 복구를 실시해 방류시설 전원 문제를 해소했고, 긴급복구 동원업체는 물넘이를 막고 있던 부유물을 신속히 제거해 방류 기능을 회복했다. 화순군과 화순

경찰서는 주민 대피로 확보와 교통 통제를 지원하며 안전한 대피를 도왔다.

공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풍수해 대응 절차와 기관 간 협업 체계의 개선점을 도출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주요 농업 기반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농어촌공사 극한호우로 인한 복합재난가경해 대응 훈련 시행

농정원, 농번기 복숭아 농가에 일손돕기 나서

세종 금남면 복숭아 농가 작업 지원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지난 5월 15일 세종시 금남면의 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농정원 임직원 50여 명은 농가에서 복숭아 '열매숙기(적과)' 작업을 도왔다. 열매숙기는 한 가지에 과도하게 달린 어린 복숭아 일부를 수

아내 남은 열매의 생육을 돕는 작업으로,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이뤄져 농번기 농가에 인력 부담이 큰 작업이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정원은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와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업·농촌과의 상생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생면 품질 높이는 국산 밀 최적 혼합 기술 개발



▲(왼쪽) 종자사진면용 새금강 (오른쪽) 혼합제조한 생면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로 만든 면의 식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최적의 밀 혼합 비율을 제시했다. 면용 밀 '새금강'과 빵용 밀 '황금알'을 7대3 또는 6대4 비율로 혼합할 경우 생면의 신장성과 탄성이 향상되고 조리 손실률은 낮아져 품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밀가루 소비 가운데

면류 비중은 38.9%로 가장 높지만, 국산 밀 면은 수입 밀에 비해 쫄깃한 식감과 신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분·단백질 함량과 재배 환경에 따른 국산 밀가루 품질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용 밀 '새금강'과 빵용 밀 '황금알'을 활용한 생면 제조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두 품종을 혼

합해 면의 구조적 특성과 식감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연구 결과 '새금강'과 '황금알'을 7대3 또는 6대4 비율로 혼합했을 때 생면 신장성이 18.4mm에서 20.8mm로 높아졌고, 조리 손실률은 7.8%에서 6.6%로 감소했다. 이는 국내 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호주산 밀(ASW·Australian Standard White)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구에서는 '황금알'의 혼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면의 탄성이 향상되고 쉽게 끊어지지 않았으며, 삶은 뒤에도 형태 유지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게시하고,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 30년 이상 축적된 사료분석 기술 · KOLAS 인정 기관으로 글로벌화 추구 · 우수한 기술력·신뢰받는 파트너

사료기술연구소



기기분석실, 전처리실 등 기능별 수요 맞춤형 공간 분리 업무 효율화로 회원사·의뢰업체 '기술파트너' 자리매김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리드스마트스퀘어 지식산업센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입사료검정업무, 사료시험검사기관 자기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료기술연구소는 기기분석실, 전처리실 등 기능별 수요에 맞춤형 공간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32개 실 80여종의 장비를 적절하게 배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료기술연구소는 이전 및 확장을 통해 KOLAS(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이후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모색하고, 공간부족 등 현안 문제를 해소해 회원사 및 의뢰업체의 기술파트너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 한국 사료 협회
법인 사료기술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신길동) 리드스마트스퀘어 1053호(우 15426)
Tel, 031-491-5723 E-mail, kfafir@kofeed.org

논둑에서 간편하게! 수도 중기 '점보제' 관심

본격적인 논 잡초 관리가 시작되면서 작업 편의성을 높인 수도용 제초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논농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논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논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점보제' 형태의 중기 제초제가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점보제는 약제를 눈에 직접 던져 처리하는 방식으로, 별도 장비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 커지고 있다.

▲'마당밭', 논조류부터 일·다년생잡초까지 폭넓게 대응
경농의 수도용 점보제 '마당밭'은 피 3엽기와 저항성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등 문제 잡초 방제에 적합한 중기 투척형 제초제다.

벤조비사이클론, 페녹솔람, 피라클로닐 성분 조합으로 피와 광엽·사초과 잡초를 폭넓게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저항성 잡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메타플러스', 고엽기 난방제 잡초 방제를 위한 프리미엄 점보제

2026년 신제품인 '메타플러스'는 고엽기 광엽잡초와 난방제 잡초 대응력을 강화한 프리미엄 점보제다.

플로르피록사피렌벤질, 메타조실퓨론, 피라클로닐 성분 조합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고엽기 광엽잡초에 빠른 꼬임 증상을 유도해 효과적으로 밀도를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마당밭 방제효과(경농 제공)

▲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간편 방제' 수도 중기

최근 수도 제배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성과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비중 증가와 함께 넓은 면적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초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초기 제초 이후에도 물달개비, 올방개, 올챙이고랭이 등 후발생 잡초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단순 초기 방제보다 중기 이후 밀도 관리의 중요성도 함